

“대기업 최고경영자, 직원 평균 연봉 격차 15.6배 받는다”

리더스인덱스, 주요 280개 기업 연봉 격차 조사
엔씨 경영자·임직원 임금 격차 108.6배로 1위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 경영자들 최고 연봉 경영인과 직원 평균 연봉 격차가 15.6배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28일 매출액 기준 상위 국내 500대 기업들 중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고 5억원 이상 수령한 임직원의 연봉을 공개한 282개 기업들의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영진 중 최고 연봉 평균은 14억 1237만원으로 2021년 19억2577만원 대비 26.7% 감소했다. 직원 평균 연봉은 9092만원으로 2021년 8669만원 보다 4.9% 증가하면서 최고 경영진 대비 연봉 격차가 22.2배에서 15.5배로 소폭 줄었다. 최고경영자와 직원 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엔씨소프트다. 김택진 대표의 지난해 연봉은 123억8100만원으로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 1억1400만원보다 108.6배 높았

다. 2위는 CJ제일제당이 차지했다. 이재현 회장의 연봉 72억9400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은 7600만원으로 96배의 격차를 보였다. 3위는 이마트로 정용진 부회장의 연봉 36억1500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은 4500만원에 그쳐 80.3배 차이를 보였다. 4위 호텔신라는 이부진 사장 연봉 35억 600만원 대비 직원 연봉 5100만원으로 68.7배의 격차를 기록했다. 5위는 에스디바이오센서로 허태영 대표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해 79억 76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직원 평균 연봉인 1억1840만원과 67.4배 차이났다. 현대자동차는 정희선 회장이 연봉 70억 100만원을 수령하며 직원 평균 연봉 1억500만원의 66.7배를 기록했다. 7위는 현대백화점이다. 정지선 회장(연봉

43억4900만원)이 직원 평균 연봉 6600만원 보다 65.9배 높은 연봉을 수령했다. 8위는 하이진로로 박문덕 회장 연봉(71억6700만원)은 직원 평균 연봉 1억995만원 대비 65.2배 많았다. 9위는 LS전선으로 구자엽 회장의 연봉(50억1000만원)은 직원 평균 연봉 7692만원의 65배였다. 10위는 60배의 격차를 보인 GS건설이다. 허창수 회장의 연봉(61억2300만원) 대비 직원 평균 연봉은 1억200만원에 그쳤다.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업종은 지주사로 조사대상 기업 9개사의 평균이 1억 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미등기임원 평균 연봉은 3억2400만원으로 2021년 평균인 3억100만원 대비 7.7% 증가했다. 가장 높은 기업은 23억8000만원의 연봉을 받은 크레프론으로 지난해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메리츠증권(13억8031만원), E1(8억8000만원), SK하이닉스(7억5500만원), LG(7억3800만원), 신세계(7억3700만원), SKC(7억2600만원), POSCO홀딩스(7억400만원), 삼성전자(7억300만원), 엔씨소프트(6억

업종	기업 수	직원 평균 연봉 증감률	최고연봉자 증감률 (직적자 제외)	2022년		2021년		2022년 사업보고서		2021년 사업보고서	
				B/A (백)	D/C (백)	직원 평균 연봉 (A)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액 (C)	최고연봉자 연봉 (B)	직무 임원의 평균 급여액 (D)	최고연봉자 연봉 (E)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액 (F)
서비스	17	-0.5%	-69.1%	129.2	416.1	96	504	12,381	96	397	40,077
식음료	21	3.5%	-31.6%	112.9	171.0	65	267	7,294	62	252	10,670
제약	11	-2.4%	32.9%	93.9	68.9	85	312	7,976	87	310	6,000
자동차/항공	22	9.8%	29.6%	85.6	72.5	82	210	7,001	75	191	5,401
건설/자재	27	1.0%	62.0%	76.1	47.4	80	253	6,123	80	260	3,779
유통	16	7.2%	-11.0%	75.7	91.1	57	380	4,349	54	350	4,885
철강	14	6.0%	2.0%	67.4	70.0	87	294	5,840	82	271	5,725
IT전자	24	7.0%	-34.4%	67.3	109.7	84	333	5,672	79	321	8,644
생활용품	17	-1.7%	13.3%	65.0	56.4	66	254	4,261	67	271	3,762
에너지	7	-27.5%	39.5%	60.3	31.4	96	327	5,778	132	285	4,142
석유화학	31	15.3%	-74.0%	52.4	232.6	106	346	5,541	92	323	21,327
지주	9	19.1%	266.8%	51.4	16.7	194	489	8,826	144	425	2,406
증권	12	-1.1%	-25.4%	35.9	47.7	142	521	5,113	144	479	6,855
조선기계	17	11.2%	-1.1%	33.1	37.2	94	277	3,107	84	215	3,143
운송	5	6.7%	-5.4%	30.2	34.1	81	234	2,434	75	229	2,572
상사	5	13.8%	11.3%	29.4	30.0	105	458	3,082	92	352	2,769
보험	11	9.0%	13.0%	28.4	27.4	104	275	2,943	95	277	2,604
통신	2	-3.9%	-12.4%	27.3	29.9	123	509	3,354	128	526	3,827
여신금융	6	6.7%	5.2%	15.6	15.8	116	267	1,806	109	249	1,717
은행	8	5.3%	57.1%	13.6	9.1	108	362	1,477	103	361	940
TOTAL	282	4.9%	-26.7%	15.5	22.2	91	324	1,412	87	301	1,926

94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 282곳 중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89개로 2021년 71개에 비해 18개 증가했다. 평균 연봉도 4.9% 증가한 909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이슬 기자



hy, '스트레스케어 씬' 500만개 판매 돌파...1초에 1병 팔

멘탈 헬스케어 시장 공략 위한 전략 제품으로 2년여 연구 끝에 개발

hy는 신제품 '스트레스케어 씬(이하 씬)'이 출시 6주 만에 누적 판매량 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선보인 자사 히트 브랜드 '장케어 프로젝트 MPRO3'보다 빠른 기록이다. 1초에 1병 이상 팔린 셈이다. 씬은 마시는 프로바이오틱스다. 멘탈 헬스케어 시장 공략을 위한 hy의 전략 제품으로 2년여 연구 끝에 개발했다. 핵심은 hy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5종과 '테아닌(L-테아닌, L-Theanine)'이다. 장(腸) 건강과 함께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 액상형 제품 중 해당 성분

2가지가 주원료로 함께 들어있는 제품은 씬이 유일하다. 기존 유제품과는 차별화된 향을 제품에 적용했다. 브랜드 콘셉트에 부합하는 자체 레시피로 아로마 오일 3종(▲베르가못 ▲캐모마일 레몬)을 배합했다. 신상의 hy M&S부문장은 "스트레스케어 씬"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설계한 복합 기능성의 제품이다"며 "이달 출시한 편의점 전용 제품의 판매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hy는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정가배송을 신청하면 추첨



을 통해 '더스테이힐링파크 숙박권'을 증정한다. 서선욱 기자

LG전자, 가격 낮춘 휘센 타워II 에어컨 출시

프리미엄 에어컨 라인업 확장...렌탈 이용 가능

LG전자가 에어컨 '휘센 타워II'에 프리미엄 디자인을 적용한 'LG 휘센 타워II' 신제품 라인업을 28일 출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제품은 심플하고, 미니 말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거실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도록 에어컨 전면이 보다 깔끔했으면 좋겠다"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기존 휘센 타워 에어컨 전면에 있던 원형 토출구를 없앴다. 또 작동 시 무드조명과 각종 정보전달을 표시하는 서클라이팅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했다. 취향에 따라 디자인을 고를 수 있어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 LG전자는 2023년형 휘센 스탠드 에어컨 전 제품에 친환경 'R32' 냉매를 적용했다. 이 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기존 'R410A'

대비 25~33% 수준이다. 가격 부담도 낮췄다. 프리미엄 디자인을 적용한 휘센 타워II 투인원(2in1) 제품은 디럭스 기준 315만~260만원으로, 300만원 초반대부터다. 청정 관리 등에 고급화 사양이 적용된 스페셜은 360만~405만원으로 정해졌다. LG전자는 가격 부담을 더 낮춘 휘센 타워II '히트' 제품군을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 예정이다. 또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초기 구입비용 부담이 없는 '렌탈-케어'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렌탈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연 1회 전문가 관리와 점검도 제공한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가격 부담을 줄였다"면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밀맥주와 아이스크림의 만남... '호가든 로제 젤라또' 출시



벨기에 정통 맥주 호가든이 봄꽃 시즌을 맞아 라즈베리 밀맥주와 아이스크림의 이색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 호가든은 젤라또 아이스크림 브랜드 '젠제

로(ZENZERO)'와 협업해 라즈베리 풍미의 호가든 로제 맥주를 가미한 '호가든 로제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젤제로는 젤라또 맛으로 유명한 디저트

이색 컬래버레이션 제품 선보여

브랜드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독창적인 메뉴들로 2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따뜻한 봄을 연상하게 하는 연분홍빛 색상의 '호가든 로제 젤라또'는 호가든 로제 맥주의 주원재료를 사용해 맛을 냈다. 달콤하고 상큼한 라즈베리에 오렌지 껍질과 코리앤더 씨드를 첨가해 시트러스 향을 더하고, 구운 빵을 연상시키는 이스트 향과 흡의 짭짤한 풍미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업 제품은 4월9일까지 삼성동 젤제로 매장에서 2주간 만나볼 수 있다. 호가든 브랜드 매니저는 "화사한 봄꽃 시즌에 어울리는 호가든 로제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과의 이색 협업 제품을 기획했다"라며 "달콤한 라즈베리의 풍미가 돋보이는 호가든 로제와 함께 여유로운 봄의 휴식을 만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

풀무원, '브런치수프&스튜' 6종 출시



풀무원식품은 간편하고 따뜻하게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브런치수프' 4종과 '브런치스튜' 2종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제품은 다양한 프리미엄 원재료를 사용해 집에서 직접 만든 듯한 신선함과 풍미를 맛있게 살려냈다. 브런치수프 4종은 유럽산 우크림, 국내산 우유를 베이스로 수프의 부드럽고 진한 맛을 살

렸다. 단호박, 고구마, 감자, 양송이 등을 곱게 갈아내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이고, 야채와도 잘 어울리는 다양한 치즈를 더해 고소한 맛을 강화했다. 브런치스튜 2종은 양지와 로스팅 처리한 야채로 육수를 내 스투 본연의 목직하고 진한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건더기를 톰지막하게 썰어 넣어 소비자들이 스투에서 기대하는 풍성한 식감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풀무원식품 관계자는 "다양한 맛은 물론, 1인 가구에 적당한 용량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들을 통해 수프 카테고리에서 풀무원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이디야커피, '라이스치즈볼' 2종 출시

유명 핫플레이스 'SAMSAMSAM(쌔쌔쌔)'과 협업

이디야커피가 오는 30일 용리단길 유명 핫플레이스 'SAMSAMSAM(쌔쌔쌔)'과 협업한 라이스치즈볼 2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신제품은 ▲라이스치즈볼 핫 디트로이트 딥소스 ▲라이스치즈볼 미소버터 딥소스로 구성했다. 라이스치즈볼 핫 디트로이트 딥소스는 토마토소스 베이스에 허브를 넣어 은은한 매운맛과 감칠맛이 특징이다. 라이스치즈볼 미소버터 딥소스는 버터 베이스에 미소된장을 조합해 고소함을 극대화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총 333명에게 증정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디야커피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이스치즈볼' 2종 관련 퀴즈 2개의 정답을 모두 맞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카페에서 가볍게 식사를 해결하는 고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번 신제품 출시를 통해 간편식 제품군을 한층 더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신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라



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